

대형 LCD TV 패널 “인기 급상승”

40·42인치 이상 대형 TV 4배 폭증 … 가격인하와 독일월드컵 원인

2006년 32인치이상 대형 LCD TV용 패널수요가 2005년 2260만대에서 85% 증가한 41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뱅크(대표 권상세)에 따르면, 2006년 LCD TV용 패널 수요는 4100만대로 32인치 이상이 50%에 이르는 20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0인치와 42인치 이상 대형 TV용 패널 수요는 평균 4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LCD TV 패널 수요 (단위: 100만대, %)

구 분	2005	2006	증 감 률
26인치	3.2	4.9	52
32인치	5.0	12.0	412
37인치	1.3	3.4	162
40인치	0.7	2.6	287
42인치	0.2	1.0	511
42인치 이상	0.1	0.5	429
기 타	12.1	16.8	38
32인치 이상	7.2	19.5	171
합 계	22.6	41.3	83

자료) 디스플레이뱅크

디스플레이뱅크는 2006년 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의 6세대 및 7세대 생산능력 증대와 타이완의 6세대 증설에 따른 패널 공급확대와 가파른 패널가격 인하를 대형 LCD 패널수요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또 6월 개최되는 독일월드컵 특수효과와 맞물려 LCD TV의 수요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디스플레이뱅크는 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 사이의 LCD TV 표준화 경쟁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40인치의 수요를 260만대로, LG필립스LCD의 42인치 수요를 100만대로 예상했다.

삼성전자의 7-1라인이 월 6만개를 생산하는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한 반면, LG필립스LCD는 2006년부터 신규라인을 시험생산해 수율을 올리는데 일정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디스플레이뱅크는 2006년 32인치 이상 LCD TV 패널 수요가 2000만대에 이르고 LCD TV가 강력한 차세대 전자제품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2005년 LCD TV용 패널 출하량은 2300만대이고 32인치 이상은 720만대로 31%에 그쳤다.

<화학저널 2006/01/09>